

# 부산 가톨릭의료원 메리놀 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부산 중구 중구로 121 후관 7층  
대표전화 : 051-461-2471, 2709



메리놀 병원은 한국 전쟁 중인 1950년 4월 15일 미국 메리놀 수녀회에서 설립하여 이 땅에 사랑, 봉사, 헌신을 실현하기 위해 첫걸음을 시작하여 올해로 설립 6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구호와 함께 의료사업을 시작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한 생명 사랑과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가톨릭 의료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발전하여 왔습니다.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인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하며, 죽음을

삶의 연장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하고 메리놀 병원은 일찍부터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메리놀 병원에서 이처럼 전인적인 돌봄을 통한 호스피스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톨릭 간호사회에서 시작하여 호스피스 전담 수녀를 중심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함께 30여 년간 산재형으로 유지되어 오면서 암 환자 뿐만 아니라 말기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면서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연 1회 사별가족 모임을 실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한 메리놀 병원 호스피스는 2016년 7월 4일 병동형의 완화의료센터를 개설하여 2017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현재 메리놀 병원의 완화의료센터는 1인실 1개, 2인실 2개, 3인실 2개로 총 5병실 11개



## 기관소개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도실, 가족실, 목욕실, 임종실 및 같은 층의 옥상정원을 이용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간병과 가족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완화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환자 및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를 도입하여 환자 및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향기가 나는’ 메리놀 병원의 완화의료센터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랑을 전하는 ‘명품 병원’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회원되심을 축하드립니다

▶ **신입회원**

- 부산메리놀병원 : 손은미
- 인천성모병원 : 김경애, 김순석, 김인숙, 김진희, 박미영,  
박연숙, 백민준, 신진수, 용한숙, 이미선,  
임성혜, 장옥심, 장정자, 최성옥

###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연수